

여수시, 정부혁신 평가 국무총리 표창...전남도 유일 수상

사랑방좌담회 · 산단 시민 가점제 · SNS 모바일 민원처리 등 호평

여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정부혁신 평가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시는 2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혁신 유공 표창 시상식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건개선,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1

개 지표로 평가했다. 그 결과 중앙부처 6곳과 지자체 6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여수시는 '시민중심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 여수'를 혁신 비전으로 삼고 81개 과제를 발굴·추진했다.

민선7기 소통 정책인 SNS 여수신문, 열린 시민청원, 사랑방 좌담회 등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SNS 모바일 민원처리시스템, 맞춤형 징수 시스템, 테크니션 스쿨, IOT 기반 전통시장 화재 감지시설, 시민옴부즈만, 여수산단 시민 가점제 등도 우수 혁신 사례로 꼽혔다.

권오봉 시장은 "시민 참여와 공직자의 노력 덕분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민중심 감동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 순천대회 성료



혁신농업인 육성기로

순천시청소년수련원에서는 최근 이틀간 전남 정보화농업인 500여명이 참여한 제11회 전남정보화농업인 전

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5G시대, 정보화 기술로 스마트 농업경영실현!'을 주제로 순천시와 순천시정보화농업인연구회(회장 박승호)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5G 시대의 미래 혁신 농업인과 경영체를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 경영과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교류의 장이 됐다.

'5G의 상용화와 스마트 농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농업현장에 등장하고 있는 드론과 로봇, 인공지능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관광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농업과 농촌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번 '전남정보화 농업인 전진대회'는 전남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각 시군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 정보화농업인 연구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표와 스마트 농업과 유통 특강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구례군, 벼 친환경단지 공동방제 추진



오는 9월말까지

구례군은 22일부터 9월 상순까지 벼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태풍 후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여건에 따라 확산이 빠른 벼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도영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흑명나방 등을 중점적으로 방제해 나간다는 방침이

다. 올해 2억5천만원을 투입해 204ha의 면적에 드론 및 공동방제와 약제 지원으로 친환경 쌀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비 절감 등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2009년부터 11년째 구례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공동방제사업은 1차는 22일부터 26일, 2차는 8월 12일부터 16일, 3차는 9월 상순에 실시하며, 기간 중 집중 공동방제로 방제 효율성을 높여 매년 참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소장은 "현재까지 벼 작황은 좋은 편이나 고온다습한 기후에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병해충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방차원에서 일반재배 논도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위한 교양강좌 개최

민선7기 들어 관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광양시가 '시민이 먼저 행복하고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성공한다'는 공감대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양 관광으

로!'라는 주제로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마인드 함양 시민 교양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외식업,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관련 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광양 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정원복 광양시장과 김성희 광양시의회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화협 관광과장의 '민선7기 광양관광진흥기본계획 및 2019 관광시책' 설명에 이어 배정근 오롯지역콘텐츠연구소 대표의 강연이 이어졌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보성군은 지난 22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이라는 주제로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성군이 주최하고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명숙)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여성단체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보성아리랑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은 여성권의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양성이 평등한 행복한 보성을 만들기 위한 의지 다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한, 국가 공무원 인

재 개발원 양향자 원장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성 인재' 특강이 이어졌다.

김철우 군수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명숙 회장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지위향상에 힘써 남여가 평등한 희망찬 보성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부대행사로 보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홍보 및 경력단절여성성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상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보성군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생활·한지공예 작품 등을 전시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곡성군, 폭염 대비 주요 시가지 살수 차량 운영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곡성군이 23일부터 곡성읍, 옥곡면, 석곡면, 옥곡면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민간 살수 차량 3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 여름철 날씨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무더위와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곡성군은 적기에 도로 살수를 실시해 도로 변형을 방지하고 열섬효과를 저감시켜 쾌적한 도로와 보행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살수 구간은 간신도로 4개 노선 5.5km에 달하며, 곡성읍 시가지 군민회관-낙동원 사거리, 옥곡면 기차마을-금천교, 석곡면 석곡초등학교-석곡중학교, 옥곡면 옥곡 초등학교-전남과학대 구간이 이에 해당한다. 폭염 주의보나 경보 발표 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더위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주요 지선도로변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고흥군, 벼 이삭거름 적기 사용 고품질 쌀 생산 총력

군, 기술지도 나서

고흥군은 밭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삭거름 적기사용 및 병해충 적기 방제 중점 기술지도에 나섰다.

군에서는 중단생종 품종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삭거름 적기사용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직원 일제출장, 마을 캠프방송, 리플릿

등을 통하여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쓰러짐, 수량 및 미질과 관련이 많으므로 품종별, 모내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비를 잘 판단해야하며 잎색이 짙은 논은 사용 시기를 늦추고 비료량도 줄여야 한다.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이삭패기 25일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는 이삭패기 15일전에 10a당 이삭거름 11~12kg 사용이 적당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높고 습하여 먹노리재 등 병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해충 예방 강화와 벼 병해충 기본방제, 물관리 등 벼농사 후기 관리에 농가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책별 인사관리방안 안내